

# 10월 한우·육계가격 하락 전망

### 김영란법에 따른 소비위축과 수입량 증가 요인... 김장철 돼지고기값 오를 것

10월 이후 한우와 육계 가격은 떨어지고 돼지고기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우 가격은 28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한우고기 수요 불확실성이 확대된 탓이고 육계는 종계환우와 생산기간 연장으로 병아리 생산이 증가 도계 마릿수가 전년보다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돼지고기는 11~12월은 계절적으로 김장철 수요가 있어 10월보다 돼지 지육가격이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됐다.

2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10월 한우 도매가격은 9월(1만9543원/kg) 대비 포함세 전망이다.

또한 예년 추석과 달리 구이용(등심, 특수부위 등) 재고 적체현상이 없

고 거의 소진돼 9월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0월 이후에는 김영란법에 따른 소비위축과 수입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 상승요인도 있다.

9월 시육마릿수는 전년 동월 275만 3,000마리보다 감소한 275만마리(한우 263만마리)가 될 것으로 KREI는 예측했다.

여기에 오는 12월에는 284만마리(한우 252만)로 감소, 소고기 공급량은 보다 축소돼 가격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

돼지고기 가격은 내린다. 10월 닭고기(육계) 산지 가격은 전년 동월수준인 1kg에 1,300~1,5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은 증가하지만 폭염으로 인한

닭고기 생산이 감소한 일부 계열업체의 구매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돼지고기는 포함 또는 오를 전망이다.

9월(1~28일) 돼지고기 지육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6.2% 오른 기준 kg당 5,141원이었으나, 10월에는 전년 동월과 비슷한 수준인 4,200~4,500원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오는 11~12월에는 돼지고기 값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계절적으로 김장철 수요가 있어 10월보다는 돼지 지육 가격이 높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1월 돼지고기는 4,400~4,700원, 12월은 4,300~4,600원으로 예상했다.

/신광영 기자



**물건 싸게 구입하세요** 27일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코리아 세일페스타 행사에서 2주간 할인 판매 할 상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 이스타항공, 하얼빈·다렌 노선 동계스케줄 오픈기념 특가 판매

이스타항공이 하얼빈·다렌 노선의 동계스케줄 오픈기념으로 특가 판매를 진행한다.

오픈 특가는 청주-하얼빈 최저 7만2,000원부터(편도총액운임), 청주-다렌 최저 6만2,000원부터(편도총액운임) 제공된다.

탑승기간은 2016년 10월 30일부터 2017년 3월 25일까지이며 특가 이벤트 항공권 구매는 이달 30일 까지 가능하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하얼빈과 다렌노선은 올 상반기에 각각 90%, 92% 탑승률을 기록한 인기노선이다"라며 "이번 특가 이벤트를 통해 실속 있는 여행을 떠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이스타항공 홈페이지(www.estarjet.com) 모바일 웹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신광영 기자

## 전북중기청, 벤처포럼 개최

### 내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서 클라우드 펀딩 관해

전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정원탁)은 오는 29일 오후5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13회 전북벤처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멘토링 및 투자연계 등을 통해 전북지역 창업활성화 및 기업가 정신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도내 유망창업기업 3개기업을 대상으로 모의 클라우드 펀딩 투자대회를 개최, 창업 초기기업의 새로운 투자 대안인 클라우드 펀딩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모의 클라우드 펀딩대회 1위 업체는 100만원의 클라우드 등록 지원금을 지급한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은 클라우드 펀딩 관련 자료작성, 동영상 제작, 전문가 멘토링 등을 할 수 있어 창업초기 기업 투자활성화를

기대했다.

전북중기청 정원탁 청장은 "전북 벤처포럼을 통해 선배창업기업의 실질적인 창업 노하우 전수가 이뤄지고 최근 전북벤처포럼에서 발굴한 2개업체가 각각 7,000만원의 투자를 받는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도내 예비창업자와 창업 초기 기업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다.

한편 전북 벤처포럼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고 전북중기청을 비롯한 전북벤처포럼 운영진, 창업선도대학, 벤처·창업 단체 기관 등이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간 네트워크 활성화, 최신 정보동향 공유, 멘토링을 통한 투자 연계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됐다.

/신광영 기자

## 전북테크노파크, 전북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위한 회의 가져

### 주력 산업별 육성방향 논의

전북테크노파크(원장 백두옥)는 27일 전북IP회의실에서 2017년도 전라북도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

회의는 전북도, 전북테크노파크를 비롯해 전북지역사업평가단, 지역 내

혁신기관 실무자 대표 등 총 50여명이 참석했다. 지역산업진흥계획은 산업부가 주관하며,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가 지역 주도로 특성화되고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담아 수립하는 종합적인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2017년도 전북 지역산업

진흥계획의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주력·협력 산업별 육성방향에 관해 논의했다.

김영수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중앙과 지역 간의 연계성에 대해 설명하며,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과 전략에 대해 제시했다.

/신광영 기자

## 지난해 국내 식품 등 생산실적 70조원으로 전년보다 줄어

### 커피·음료·빵·설탕 등 생산 감소로 포장류 생산실적 줄어

지난해 국내 식품 등 생산실적이 70조원으로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국내 식품 등 생산실적이 전년(72조9708억원)보다 3.5% 감소한 70조411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제조업 국내총생산(GDP)에서 식품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6.8% 전체 GDP 대비로는 4.5%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보다 각각 1.1%포인트, 0.4%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업종별로 보면 식품제조·가공업이 39조2077억원으로 전체의 55.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식육포장처리업(12조374억원), 유가공업(6조1300억원), 용기·포장지제조업(5조8906억원), 식육가공업(4조2731억원), 식품첨가물제조업(1조4055

억원), 건강기능식품제조업(1조1332억원) 순이었다.

2014년과 비교해 식육가공업과 유가공업은 각각 7.5%, 2.8% 증가한 반면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용기·포장류제조업은 각각 5.7%, 21.9%, 4.2% 감소했다.

커피(-3714억원), 음료류(-2122억원), 빵·떡류(-1884억원), 설탕(-1028억원) 제조업체 등의 생산이 감소하면서 식품, 식품첨가물, 용기·포장류 제조업의 생산실적이 줄은 것으로 분석된다.

식품유형별로는 돼지고기 포장육이 5조314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소고기 포장육(4조4250억원), 닭고기 포장육(1조8643억원), 과자(1조4457억원), 우유(1조3800억원) 순이었다.

이어 양념육(1조3674억원), 수산물가공품(1조3216억원), 소주(1조2813억

원), 기타가공품(1조2574억원) 등이 10위 안에 들었다.

1조원 이상 생산 업체는 7개사로 나타났다. 이들이 국내 식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8%였다.

업체별로는 농심이 1조8828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롯데칠성음료(1조4530억원), CJ제일제당(1조3505억원), 서울유유합동조합(1조1351억), 하이트진로(1조1313억원), 오리온(1조828억원), 롯데제과(1조30억원) 순이었다.

전체 식품제조업체 수는 3만7733개로 전년보다 1.6% 늘었다. 이 중 80% 이상은 10인 이하 업체였다.

생산액 규모는 전년에 비해 감소한 11.2%에 그쳐 영세한 식품제조업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와 충청 지역이 각각 전체 생산 실적의 28.2%와 21.4%를 차지해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시스

## 전북은행, '사회복지사 힐링 Day' 가져

### 내달 19일 전북은행 본점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종성)와 함께 내달 19일 전북은행 본점에서 '휴식이 필요해!, 제1회 사회복지사 힐링 Day'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도내 사회복지사 5,600여 명을 대상으로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사의 위상확립에 기여하고자 특별히 마련됐다.

힐링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임

용택 전북은행장의 '전북은행의 사회공헌 방향성, 김승수 전주시장의 '사회복지사가 행복한 전주' 등 명사특강 및 공감 토크쇼와 어쿠스틱 밴드의 미니 힐링콘서트, 사회복지사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기념 퍼포먼스 등 참여자들이 함께할 수 있는 다채로운 내용들로 채워진다.

임 행장은 "사회복지사들이 먼저 재충전의 기회를 가져야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올해 처음으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면서 "도내 사회복지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 모바일 E커머스업계 패션 부문에 골들어

E커머스업계가 패션 부문에 공을 들이고 있다.

과거 가격할인, 쿠폰행사 등을 주축으로 일궈온 온라인 패션 영역이 이제는 오프라인 브랜드 입점, 모바일에 최적화된 패션코너 신설 등 입체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11번가는 올 연말까지 총 100개 디자이너 브랜드 보유를 목표로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 유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실제 지난 8월에는 해외 유명 컬렉션 뿐 아니라 국내 백화점, 신사동 패션 편집샵 등에서 주목을 받은 차진주 디자이너의 여성복 브랜드 헤프닝을 이번번에로 입점시켰다.

이밖에도 모바일에 특화된 맞춤형 패션코너를 신설하고, 패션 MD가 선별한 정보를 모아 트렌드를 소개하는 등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마켓트 디자인 상품 구매 미션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브랜드 패션의 경우 본사의 직접 제휴를 통해 상품 다양성을 확보하고, 제품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최근에는 인기 소호몰을 중심으로 한 패션 탑 셀러와의 공동 마케팅을 통해 트렌드패션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육선에서는 패션 구매 고객 혜택을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패션 강화에 나섰다. 육선은 베이직의류 전문관 베이직웨어 3주년을 기념해 과거적인 가격할인을 제공한다.

/뉴스시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